

월정사 출토유물 소유권 논란

월정사 사찰경내에서 나온 유물 보유는 당연

문화재청 국가귀속절차 이미 끝나 반환곤란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사찰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국가 귀속 절차를 밟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정사는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국가 귀속 처리된 유물 13점은 월정사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이므로 월정사에 소유권이 있다'며 '국가귀속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환원시켜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12세기 동전, 양녕·효령 대군의 이름이 새겨

진 양막새 기와 등 유물 13점은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2001년 11월과 2002년 5월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국보 48호) 주변을 시·발굴해 출토한 유물들이다.

월정사가 속해 있는 평창군은 '문화재보호법 46조 2항'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인 평창경찰서가 지난해 10월 16~29일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내도록 했고, 그 후 유물을 국가 귀속 조치한다는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뒤늦게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월정사는 "관할 경찰서는 물론 평창군으로부터도 소유권 주장에 대한 사전 공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월정사 발굴 유물의 경우 월정사에 전래되어 온, 월정사 소유가 분명한 것으로 국가 귀속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해당 사찰에서 보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상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미 국가 귀

속 절차가 끝난 만큼 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매장문화재 소유권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처음이다"며 "공고 전 발굴기관이나 해당 관청이 이를 사찰에 인지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46·47·48조에는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굴조사사업 처리지침'은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를 해당 시·군·구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뢰, 공고 조치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대구경북 포교사단 포교사들이 합동분향소에서 염불봉사를 하고 있다.



영남불교대 자원봉사 모습.



대구불교사회복지회는 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김태복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 발족

대법원 공명정대하게 매듭을

석탑 현물 시주가 현금수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4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태복 소장' 구명운동에 마지막 불을 당겼다.

18일 포교원 2층 강당에서는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발족식에서 조계종 교육부장 정산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종교와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 전도돼 자칫 군대내 불교 활동이 일순간에 위축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시는 군대내에서 군불사와 관련된 소송건이 무고하게 재판에 연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며, 김태복 소장 사건과 같은 유형의 종교편향성이 짙은 사건이 발생할 시 불교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불교대책위는 또한 △대법원은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 △기소를 주도했던 관련자는 불교계에 사회할 것 △국방부는 김태복 소장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등을 주장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등 종단 지도자급 스님 30여 명이 대책위에 포함됐다.

한편 28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김태복 장관 재판이 열린다. 남동우 기자

동국·위덕대 학위수여식

산악인 박영석 씨가 동국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및 공포패를 받았다.

히말라야 8천미터 이상 14좌를 완주한 박영석 씨는 14일 중강당에서 열린 동국대(총장 송석구) 200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등반에서의 고도에 따른 체력 및 생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히말라야 산맥의 K2 봉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동국대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62명, 석사 645명, 학사 2천569명 등 총 3천276명이 학위를 받고 사회로 진출했다.

한편 위덕대(총장 손제석)도 18일 교내 야외공연장에서 200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4회째 맞는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학위 수여자 388명, 석사학위 수여자 46명, 최고 경영자과정 30명이 배출했다.

김원우기자

한국 선지식 37명 삶·사상 조명

가산불교문화연구원, 해인사서 포럼

삼국시대 원효 스님에서 근·현대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1600년 한국 불교사를 밝히는 선지식 37명의 삶과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스님)이 13~15일 해인사에서 개최한 '일천년 한국의 선지식' 제1차 포럼이다. 원장 지관 스님은 "선지식들의 조

명을 통해 한국사에서 소외된 1000년 지성사를 복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1차 포럼은 연구자간 토론과 비평을 통해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고, 8월경 또 한 차례의 포럼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짧은 출가 참나를 찾아서"

정도회, 8일간 옹맹정진

정도회(대표 유수)가 불기 2547년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이해 8일간 법당에 상주하면서 정진하는 '짧은 출가 참 나를 찾아서'를

진행한다.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정토법당에서 진행되는 '8일 출가옹맹정진'은 매일 3회 법문(부처님 일생, 불교와 수행, 불교의 사상, 일문일답), 발우공양, 매일 1000배 정진, 명상 등으로 이뤄진다. 문의: 02)587-8993 남동우 기자

새만금서 조계사까지 3보1배

수경스님·문규현신부 3월21일부터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새만금 살리기'를 위해 3월 21일부터 새만금에서 조계사(약 250km)까지 한 달 보름 동안 3보 1배 한다.

수경스님은 이번 행사에 대해 "북한산이나 새만금 문제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놓은 결과물"이라며 "노무현 당선자에게 공약이행 등을 촉구하기

이전이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참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과 서울대 환경동아리 씨알 등은 '새만금 유랑단'을 결성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새만금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2박 13일 동안 도보 행진할 한 적이 있다. 남동우 기자

해인사승가대학(전통강원)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0명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 ②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 ③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 ④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 ⑤ 주민등록초본 2부
- ⑥ 호적등본 2부
- ⑦ 건강진단서 2부
- ⑧ 은사스님 추천서 1부
- ⑨ 은사스님 명명·속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준비물

- ① 사 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 ② 입학금
- ③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전형방법

- 1차 입방 ◆ 서류제출일 : 불기 2547년 2월 10일(양력 2003년 3월 12일) 수요일
- ◆ 서류심사 및 면접일 : 불기 2547년 2월 14일(양력 2003년 3월 16일) 일요일
- ◆ 입 방 일 : 불기 2547년 2월 15일(양력 2003년 3월 17일) 월요일
- 2차 입방 ◆ 제 24기 행자교육원 수료 후 1주일 내 예정

문의처

● 전 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7년 월 일

해인사승가대학 주지 수봉 세민·학장 정혜 지오